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미리보는 2008 프로야구

### <4> 허규연에게 듣는 시즌 관전 포인트



## “KIA 돌풍이 올 시즌 흥행 열쇠”

허규연 MBC 야구 해설위원은 2008시즌 프로 야구의 판도를 2강 5중 1약으로 예상하고 있다. SK와 삼성의 강세 속에 우리를 제외한 5팀이 치열한 중위권 싸움을 펼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여기에다 허 위원은 방망이와 마운드 전력을 보강한 KIA가 우승 전선에 복병 역할을 할 것 인지도 팬들은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인선수와 새로 그라운드에 선보이는 용병들이 2008시즌의 키플 쥐고 있다며 이들을 주목 하라고 말한다.

#### 나지완(KIA)·정찬현(LG) 등

#### 팀내 새바람 불어넣을 듯

#### 유동훈(KIA)·배영수(삼성) 등

#### 돌아온 주전들 부활도 관심

다음은 허 위원이 제시한 2008시즌 관전 포인트.  
 ◇다크호스 'KIA' 돌풍 일으키나=시범경기를 1위로 마쳐 시즌 다크호스로 떠오른 KIA는 우승 전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복병'이다.  
 용병 호세 리마가 시범경기에서 2승을 올려 녹슬지 않은 실력을 보여주었고 서재응의 회복도 시간문제다. '거포' 최희섭의 가능성도 충분히 검증됐고 신인 나지완은 4번타자감으로 충분하다.  
 부상선수들이 복귀하면서 전력이 강화됐고, 새 감독 체제에서 백업요원의 경쟁 구도가 이루어져 팀 분위기가 한층 상승된 KIA의 돌풍 여부가 올 시즌 주요 관심사이다.  
 ◇신인왕 경쟁, 새 활력소로=올해는 나지완(KIA), 정찬현, 이범준(이상 LG), 잔야콥(두산)처럼 좋은 신인들이 많이 들어온 만큼 이들의 활약여부가 프로야구 전체를



KIA 유동훈

활성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시즌 전부터 신인상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신인들의 역할에 따라 팀의 회복도 엇갈릴 전망이다.  
 ◇용병 제대로 적응하나=팀 전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용병들의 한국 적응 여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성적은 곧 팀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올 시즌 한국 무대에 처음 도전하는 용병은 쿠비안



삼성 배영수 한화 토마스

(SK), 클락·토마스(이상 한화), 오버올러(삼성), 맬레리·가르시아(이상 롯데), 리마·발레스(이상 KIA) 등이 있다.

전력을 완비한 실제 무대에서 이들이 어느 정도 실력 발휘를 하는 지에 따라 각 팀의 초반 페이스가 결정돼 순위 다툼의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국내 프로야구 사상 외국인 사령탑을 맡은 로이스터 감독에게도 시선이 쏠린다. 롯데는 로이스터 감독이 부담한 뒤 팀 분위기가 확 달라져 올 시즌 성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돌아온 옛 주전들의 활약=배영수, 이재영, 이재우, 유동훈처럼 부상과 군입대 등으로 그라운드를 떠났던 반가운 얼굴들의 활약 여부도 올 시즌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팔꿈치 수술로 지난 시즌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던 삼성에이스 배영수는 시범경기에서 화려한 부활을 알리며 팀을 당장에 2강 후보에 올려놓았다.

군에서 제대한 이재영, 이재우의 마운드 수습 여부에 따라 기동성으로 승부하는 두산의 기세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KIA는 허리가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4강을 넘어 서기 위해서는 예비역 유동훈의 역할이 중요하다. <끝>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코리안 빅리거 '위기'

김병현 피츠버그서 방출

박찬호 선발 여부 불투명

류제국·추신수 '마이너'



김병현

미국프로야구가 31일 오전 9시5분(이하 한국시간) 워싱턴 D.C 내셔널스 파크에서 열리는 워싱턴 내셔널스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을 시작으로 팀당 162경기씩 7개월간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미 지난해 월드시리즈 챔피언 보스턴 레드삭스와 오슬랜드 애슬레틱스가 25~26일 일본 도쿄돔에서 정규 시즌 개막전을 벌였지만 워싱턴-애틀랜타전이 본격적인 메이저리거 시즌 도래를 알리는 게임이다.

올해도 보스턴의 강세가 지속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강타선을 구축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제2의 외계인' 투수라는 좌완 호안 산타나를 영입한 뉴욕 메츠, 명장 조 토레 감독을 영입한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등이 강팀으로 꼽힌다.

게다가 올해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전통의 강호 시카고 컵스가 마지막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지 100년째 되는 해여서 컵스의 분발도 팬들의 흥미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으로 보인다.  
 화셋거리가 넘치지만 한국팬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시즌이다. 우려했던 코리안 빅리거 열풍 사태가 벌어질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저스에서 개막전 로스터 진입을 노리는 우완 투수 박찬호(35)는 30일 보스턴과 시범경기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하고 27일 피츠버그에서 방출된 김병현(29)은 새 팀을 알아봐야 하는 처지다.

시범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4.40의 난조로 결국 피츠버그에서 쫓겨난 김병현은 시즌 직전이라는 시기상 문제와 구위 하락이라는 개인 문제가 겹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추신수(26·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류제국(25·탬파베이 데블레이스)은 일단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맞는다.

단 우완 투수 백차스(28·시애틀 매리너스)는 선발 로테이션에서는 제외됐으나 볼펜 투수로 로스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 광주일고 8강 안착

###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인창고에 7회 콜드 승

제 62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광주일고가 구리 인창고를 꺾고 8강에 진출해 호남야구의 자존심을 세웠다.

광주일고는 27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벌어진 인창고와의 대회 16강전에서 철벽 마운드를 앞세워 8-1로 7회 콜드게임 승을 거뒀다.

광주일고는 3회 1사 2-3루 상황에서 허경민의 역투로 양 볼로 선취점을 뽑은 뒤, 김태형의 내야 땅볼로 1점을 추가해 2-0으로 앞서 나갔다.

이러던 4회에서는 1사 만루에서 허경민이 몸에 맞는 볼로 밀어내기 점수를 추가하는데 이어 조영선의 2타점 적시타까지 보태며 확

실한 승기를 잡았다.  
 화끈한 타선의 지원을 받은 선발 양영웅은 5이닝 동안 1안타 3사구 4탈삼진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이날 인창고는 양영웅-장민제-박근남-김인성으로 이어지는 광주일고 마운드를 상대로 단 1개의 안타밖에 뽑지 못하며 대패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호남팀 중에서 유일하게 16강에 오른 광주일고는 가볍게 8강에 진출하면서 호남 야구의 체면을 살렸다.

광주일고는 상원고를 꺾고 8강에 합류한 선린인터넷고와 28일 4강 다툼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英 축구스타 베컴 마침내 A매치 100경기

데이비드 베컴(33·LA갤럭시)이 마침내 센추리클럽(A매치 100회 이상 출전 선수)에 가입했지만 '축구종가' 잉글랜드는 프랑스에 패했다.

프랑스는 27일(한국시간) 오전 파리 생드니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와 친선경기에서 프랑크 리베리(마르세유)가 전반 32분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1-0으로 이겼다.

베컴은 이탈리아 출신 파비오 카펠로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고 선발 출전해 전반 38분 경고를 한 차례 받았으며 후반 18분 교체됐다.

1996년 잉글랜드대표로 데뷔전을 치른 베컴은 이로써 A매치 100경기(선발 96회) 출전 기록을 세웠다.

'삼바 군단' 브라질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스웨덴과 평가전에서 후반 27분 신에 알렉산드레 파드(AC밀란)의 선제 결승골로 1-0으로 이겼다. '무적 함대' 스페인도 홈에서 열린 친선경기에서 후반 31분 공격수 다비드 비아(발렌시아)가 골을 터뜨려 2006 독일월드컵 챔피언 이탈리아를 1-0으로 격파했다.

국제축구연맹(FIFA)랭킹 1위 아르헨티나는 카이로로 날아가 이집트를 2-0으로

불렀고 '월드컵 4강 청부사'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러시아는 투마니아에 0-3으로 압패했다. '전차 군단' 독일은 스위스를 4-0으로 꺾었고, 유로 2004 우승 팀 그리스는 포르투갈을 2-1로 제압했다.  
 네덜란드는 7골을 주고 받는 치열한 공방 끝에 오스트리아를 4-3으로 눌렀고 동유럽의 강호 체코는 덴마크와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2010년 월드컵을 준비 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남미의 파라과이를 홈으로 불러들여 3-0 완승을 거뒀다. 크로아티아와 스코틀랜드는 1-1로 비겼다.

#### 2008시즌 예상 기록

최다 홈런(340)	양준혁(삼성)	-10
최다 세이브(227)	구대성(한화)	-15
투수 최초 800경기 출장	조용천(SK)	-44
3000 이닝 투구	송진위(한화)	-137
2000 탈삼진	"	-30
550 도루	전준호(우리)	-18
18년 연속 두자리 도루	"	"

#### 2008시즌 달라지는 점

	2007시즌	2008시즌
무승부	정규리그 12회 포스트시즌 15회	무승부 폐지 (더블헤더·서스펜디드 경기는 9회, 5회 이후 강요 콜드 제외)
모스트 시즌 확대	준PO: 3선2승제 PO: 5전4승제 KS: 7전4승제	준PO: 5선3승제 PO: 7전4승제 KS: 7전4승제
경기 개시시간	평일 - 18:30 토, 일, 공휴일 - 17:00	평일 - 18:30 토, 일, 공휴일 - 14:00(3~5월) 17:00(6월부터)
엔트리 인원	26명 등록, 24명 출장	26명 등록, 25명 출장

### 구단별 전력 분석 <중>

#### 거포 중심타선 구축

#### 한화

'공포의 홈런 군단'

시범경기에서 6승6패1무로 4위를 차지한 한화는 김태균, 이범준과 새로 영입한 클락이 9개를 홈런포를 날리며 클린업트리오의 막강 위력을 과시했다.



한화의 다이너마이트 타선은 8개 구단 최고 수준이다. 유원상이 시범경기에서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고, 윤규진의 가세로 선발진에 한결 여유가 생겼다. 노장 송진우도 노련미로 돋보이지만, 에이스 류현진이 올림픽 예선 이후 부진하고 타법에 비해 전력보강이 적은 게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막강 마운드 재정비

#### 삼성

'에이스의 귀환'

우승후보로 꼽히는 삼성 라이온즈는 투·타에서 안정된 전력으로 시범경기에서 8승3패 2무로 2위를 차지했다. 팔꿈치 수술로 지난 시즌 마운드에 나서지 못했던 배영수는 시범경기 15이닝 동안 1.80의 타점 공자책점을 기록하며 '에이스의 귀환'을 알렸다. 배영수의 가세로 권오준, 오승환으로 이어지는 마운드가 완성돼 삼성의 '지키는 야구'는 한층 힘을 받게 됐다. 양준혁, 심정수가 지키고 있는 타선에 크루즈가 합류해 중심타선에도 무게가 실렸다.



#### 창단 후유증 관전

#### 우리

'전력 미정비'

팀 창단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우리 히어로즈는 시범경기에서 단 2승만을 챙기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홈 구장인 목동구장의 공사로 2경기는 아예 치뤄보지도 못하는 등 혼란량도 부족하고 선수들의 사기가 떨어져 시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하지만 1998년 이후 4차례나 한국시리즈를 제패한 저력을 갖고 있는 팀으로 투타에서 용병 스코비와 브룸바가 견재하다. 신에 김성현도 시범경기에서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뿌리며 마운드 지원에 나섰다.



#### 방망이 회복 급선무

#### LG

'투고타저'

박명환, 브라운, 심수창, 정재복, 최원호, 이승호 등으로 이어지는 투수진이 든든하다. 신인 정찬현은 시범경기에서 겁 없는 피칭을 선보이며 신인왕 1순위로 급부상 했고, 강속구 투수 신인 이범준도 1군 엔트리에 합류하면서 젊은 투수들의 활약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LG는 높은 마운드에 비해 타선의 무게가 떨어지면서 4승7패1무로 6위로 시범경기를 마감했다.

팀 타율은 2할3푼1리로 전체 7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골프·윈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별리 회원권**  
 저액 '특별리 회원권' 및 동원회비에서 별도인 경우를 전문 에이전트로의 도움으로 최저가인 화를 제공합니다.  
 충수에 일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상담문의 (062)351-0095